월요광장

24%가 76%로

문 요 한
정신과 의사

얼마 전 대학 선후배 모임에서의 일이다. 동기 중 한 명이 운전한다며 술을 안 마셨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선배가 한마디 했다. "야! 대리하면 되잖아. 내가 대리 운전비 줄게. 네가 안마시니까 분위기가 흐려지잖아." 동기는 그래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선배는 화를 냈다. "어울리지 않을 거면 뭐 하러 왔어! 야, 다음번에 이 녀석한테 연락하지 마. 선배 말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결국 동기 녀석은 1차만 하고 먼저 집에 갔다. 왜 그 선배는 모두가 다 같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집에 오다가 옛날 생각이 났다. 대학에 입학하자 동문 선배들이 환영회를 열어주었다. 이름하여 사발식이었다. 라면 그릇에 한가득 막걸리를 부어 팡파르 합창이 끝나기 전에 마셔야 했다. 그냥 마시면 심심하다며 담뱃재를 털어 넣은 선배도 있었다. 한 명씩 사발식을 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동기 하나가 못 마시겠다고 버텼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선배들 몇 명이 데리고 나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동기는 다시 들어와서 사발을 비웠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다.

내 차례가 왔다.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망칠 수 없었다. 그날 밤은 모두 술에 취해 난장판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에 난 지난밤을 부끄러워했을까? 기억에 없다. 대신 동문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이 들었다. 그리고 1년 뒤 난 선배가 되었다. 나는 아무런 의문 없이 후배들을 환영한다며 라면 그릇 한가득 술을 부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갔다. 불합리한 문화에서도 개인보다는 집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주관보다는 조화를 중시하며 살았다.

그러나 세상은 멈춰 있지 않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허다하다. 올해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논란을 보면서도 그 변화를 실감했다. 나는 민족의 대의를 위해 몇몇 선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개인의 자발적 동의 없는 희생은 불공정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젊을수록 그런 의견이 많았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생각해 볼수록 그게 맞았다. 우리는 권위적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별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집단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단과 개인의 균형이지 양자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선택해 온 문화의 유산이다. 지금이야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초기 인류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중간 정도 밖에 되지 못했다. 인간은 발도 느린 데다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었다.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단적 협력'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인간이란 생명체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뛰어난 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뛰어난 종으로 진화하였다. 고도의 사회성을 갖춘 것이다. 이는 우리의 뇌와 유전자, 그리고 문화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그 문화에 동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협력을 위해서이다. 물론 그 역기능도 있다. 불합리한 문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에 동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관행'이라고 하거나 더 나아가 '적응'이라고 합리화한다. 서양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40여 년 전에 이를 실험으로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애쉬는 대학생들에게 세로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 주고, 또 다른 카드에 그려진 세 개의 선에서 길이가 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선의 길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답률이 1%도 되지 않는 아주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핵심은 참가자 앞에 다섯 명의 가짜 참가자가 오답을 말하는 것에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앞 사람들이 오답을 이야기하니 여섯 번째 사람도 오답을 말하는 일이 무수히 벌어진 것이다. 무려 76%에 달하는 대학생들은 쉬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한 번 이상씩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느라 오답을 이야기했다.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정답을 이야기한 사람은 불과 24%에 불과했다.

이것이 인간 사회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것에서 불안을 느끼고, 집단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개인의 판단과 결정까지 무의식적으로 바꿔 버리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바뀌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충돌이 커지고 있지만 결국 24%를 존중해 주는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4%가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는 사회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이야기한 24%가 76%로 늘어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2040

평등권 위반한 새마을장학금 특혜 조례

김 경 은
위민연구원 공동대표·변호사

광주시에 특정 단체의 자녀에게 시민 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다. 어떤 상위법적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광주시는 위 특혜 조례에 의해 올해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조례가 공정성과 평등권에 위반되었는지는 집행된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바,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빛고을장학금과 비교하여 볼 때 평범한 광주시민의 자녀가 장학금 수혜를 받을 기회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비해 84분의 1, 장학금액은 128분의 1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나아가 지난 4년간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 총 562명 중 3년 연속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수혜자 3명, 두 차례 중복 수혜자 78명을 비롯해 한 가정 2자녀 수혜자도 48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혈세가 중복되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새마을 장학금은 유신 말기인 1978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올해로 40년째를 맞고 있다.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이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147만 명의 광주시민들 중에서 40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다. 2013년에 개정된 조례 제1조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부모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의는 '각 구의 구청장이나 시장과 협의하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역시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조직이 있는 단체에 특혜성 예산을 지급할 근거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면밀한 심사가 아닌 협의라는 것은 그만큼 자의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 사회와는 거리가 먼 '특권 중의 특권'이자, 이미 폐지되어야할 '적폐'이다. 광주시는 위 새마을 단체에 매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올해에도 지급하려고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자, 다수 시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장하는 특권 조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특권 불공정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광주시의회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이 의회가 구성된다. 새로운 의회에서는 광주시민의 혈세가 특정인들에게 이중, 삼중, 특혜 중복 지급된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평등권 위배와 특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학금 지급 조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 검토 후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 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이란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불평등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선언하고 것이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우리 광주시민은 진정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위 새마을 장학금 지원 특혜 조례로 인해 광주시민은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새로 개원한 광주시의회는 이에 대해 답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이 조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기 고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발 유감

김 재 요
한국야구기록연구회(KBR)회장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예비 명단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예비 명단에 투수 52명, 포수 7명, 1루수 6명, 2루수 8명, 3루수 9명, 유격수 8명, 외야수 19명 등 총 109명이 올랐다.

이번 발표된 명단은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추후 최종 엔트리는 예비 명단 내에서만 선발 및 교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번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선발 회의에는 선동열 국가대표 전임 감독과 함께 이강철 두산베어스 코치, 이종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유지현 LG트윈스 코치,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진갑용 삼성라이온즈 코치, 김재현 SPOTV 해설위원이 참석했다.

구단별 선발 선수 현황을 보면 우승팀 KIA가 12명, 준우승팀인 두산이 16명, NC가 13명, 삼성이 11명, SK와 LG가 각 10명, 넥센과 kt가 각 9명, 롯데가 8명, 한화가 7명 그리고 아마추어 4명 등 총 109명이다.

우리 지역 연고팀인 KIA의 선수로는 투수 임기영·김세현·김윤동·한승혁·양현종, 포수 한승택·김민식, 내야수 김주찬·안치홍·김선빈, 외야수 이명기·최형우 등 12명이 포함되었다.

명단이 발표된 뒤 지역 팬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선발 과정에서 우승팀의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것, 해당 구단의 추천 절차가 없었다는 것,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등이다.

국제대회는 큰 경기를 치러 본 경기 경험이 개인 기량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일선 지도자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매번 리그 성적이 신통치 않음에도 국제 경기 경험이나 큰 경기를 치러 본 선수를 선발하여 그 결과를 입증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한국시리즈라는 큰 경기를 치러 우승을 일구어낸 우승팀인 KIA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산과 NC보다 더 적은 선수가 선발됐다.

KIA 선수 중 가장 아쉬운 이름은 좌완 심동섭과 전천후 야수 최원준이다.

셋업진으로 가치가 있는 좌완 심동섭은 지난 시즌 2세이브 11홀드, 통산 10세이브 66홀드를 기록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지난 시즌 4년 연속 50경기에 출전했던 심동섭은 올 시즌에는 통산 8번째 4년 연속 10홀드 기록에 도전한다. 심동섭은 가벼운 부상으로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퓨처스리그에 출장 중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회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원준은 올 시즌에는 공·수·주에서 발전한 모습으로 이범호의 공백을 메우며 활약 중이다. 그동안 불안했던 수비도 3루수, 유격수, 1루수를 번갈아 가며 소화하면서 좋아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야수로도 출장이 가능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있다. 타격의 천재성은 부연설명이 불요하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두 선수가 109명의 예비 명단에조차도 들지 못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다. 또한 팀의 형평성을 배려해 억지로 12명을 맞추어 선발했다면,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대회 엔트리는 포수 자원은 2명 정도를 선발하는 전례를 보아, 현재의 성적 등을 참고한다면 강민호와 양의지가 유력한 자원이기 때문에 KIA의 한승택과 김민식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사실상 KIA 선수는 12명이 아니라 10명에 불과하다.

선발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이 탁상공론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개개의 선수들 상태를 소상히 아는 각 구단과 상의하고 최소한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 같은 실력이고 같은 포지션이라면 '군 미필자 우선 선발'을 통해 그들의 동기를 전력으로 극대화했어야 옳았다는 주장도 간과했다는 여론이다. 이는 'FA로이드효과'의 양의지와 송광민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전력을 다할 '군 미필자'들에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발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서서히 윤곽 드러내는 광주 구청장 선거 구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남구를 제외한 광주 지역 네 개 구청장 경선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 동구청장 경선은 강수훈·강신기·양혜령·임택 후보 등 네 명이, 서구는 김보현·김영남·서대석 후보 등 세 명, 북구는 문상필·문인·조오섭 후보 등 세 명, 광산구는 김영록·윤난실·윤봉근 후보 등 세 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남구는 중앙당 요청에 의해 컷오프 보류 지역으로 분류됨으로써 결정이 미뤄졌다.

우선 동구는 현 김성환 청장이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평화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막강한 현역 프리미엄의 김 청장에 맞서 이번에 민주당 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네 명의 후보 중 누가 경쟁 상대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서구는 광역의원 출신인 김보현·김영남 후보와 서대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민주당 경선에 올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대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나,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우진 서구청장이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이성일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천을 받았다.

북구는 민주당의 경우 단일화에 나선 문상필·조오섭 전 시의원과 문인 전 행정부시장 간 대결 양상이다. 여기에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은방 후보가 평화당 깃발을 들고 출전한다.

광산구 민주당 후보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삼호 예비후보가 충격 속에 탈락한 가운데 김영록 광주세무사회 회장과 윤난실 전 광산구 공익활동센터장, 윤봉근 전 시의회 의장이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김삼호 예비후보의 재심 청구 여부와 향후 역할도 경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평화당에서는 이정현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출전한다.

이제 구청장 선거전도 여·야 후보군이 서서히 압축되어 가고 있다. 최종 대진표는 민주당이 5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하는 다음 달 5일께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 또한 시민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노선버스 운행 차질 없도록

전남 지역 서민들의 발인 시내·시외 노선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 주당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운전자 부족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노선버스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넘기는 연장 근로가 불가능해진다.

노선버스는 목포와 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군 지역의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가 해당한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당 근로 시간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다.

버스 업계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려면 근무 형태를 기존 격일제나 이틀 근무 후 하루 쉬는 방식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전남 지역 37개 업체에서 200여 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규 버스 운전자를 채용하려면 1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3개월의 교육·훈련이 필수적이어서 최소 15개월이 필요하다. 전남 지역 시내·농어촌버스 46개 업체 중 차량 50대 미만이 31개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점도 걸림돌이다.

버스 운전자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노선버스 운행이 줄어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배차 시간이 늘어나거나 막차 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행 운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선버스 운전자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자는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온 세계다.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반독재·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70~80년대 '운동권' 인사들의 '금과옥조'였지만 지금은 역사의 유물이 되어 박물관에 전시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말라비틀어진 '공산당 선언'이 다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재벌가 자제의 '무한 갑질'이 화제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야기다. 조 전무가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내뱉었다는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도 SNS 등에 돌아다닌다.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 목소리에는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들의 비뚤어진 심리가 반영돼 있는 것 같아 불편하기 그지없다.

새된 그 목소리에는 '누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다른 사람을 상대로 눈치를 보거나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권력자의 '막무가내식' 자신감이다. 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상대를 배려하는 존댓말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잊힌 지 오래라는 것도 금세 느껴진다. 대기업의 정원에 우뚝 솟은 황금탑에 들어앉아 온갖 위세를 부리는 모습이 여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그 업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기업, 기업인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봉쇄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인정을 획득한다. 특정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서로의 존재와 발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황금탑'은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노동자들은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촛불 혁명'의 주역이다. 금수저들이 '황금탑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공산당 선언'의 망령이 또다시 얼굴을 내밀지도 모른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